



6각형 고리의 신비, 육각수



글 __ 전무식
한국과학기술원 명예석좌교수

액체 상태인 물 속에는 물 분자 하나하나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5각형, 육각형으로 된 고리 구조로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시고 있는 물의 화학적 구조는 크게 육각형 고리구조, 5각형 고리구조, 그리고 5각형 사슬구조 등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육각수 혹은 오각수라고 부른다.

이중 육각수는 생리활성이 커 이것을 마신 식물플랑크톤은 증식률이 높아졌고 녹색식물은 수확량이 많아졌으며 병아리의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산란율이 향상되는 등 실험을 통해 이미 입증됐다.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물, 육각수

인체는 70%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질병 치료에 있어 어떤 약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포 주위

먹는 물 때문에 아우성이다. 수돗물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의외로 많으며 약수나 생수를 구해 마시고 정수기로 걸러 마셔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좋은 물은 건강의 기본이며 질병의 예방은 물론 치료까지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올 만큼 물의 신비는 무한하다. 특히 인체의 세포 하나하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알려진 물박사 전무식 교수의 '육각수 이론'을 통해 물의 신비를 들여보자.

를 구성하고 있는 물이 일정한 크기와 규칙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하는데, 만약 이 구조가 흐트러지면 세포의 기능에 곧바로 이상이 생겨 질병(AIDS, 암, 당뇨병)등이 발현될 수도 있다. 또 암 환부에 많이 존재하는 것이 5각수인데 정상세포와 종양세포 주변의 물을 조사해보니 종양세포 주위의 물이 정상세포에 비해 질서가 없고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떤 이유나 원인에 의해 세포의 물 구조가 파괴돼 생긴 암이나 당뇨병 등도 이런 파괴된 세포내 물 구조를 정상화해줌으로써 치유까지 가능하다.

차가운 물을 많이 마실수록 장수한다!

또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노화관계에서도 물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노화란 체내의 구조화된 물(정상세포의 육각수 물)이 체외로 빠져나가면서 인체 내에 구조화 되지 않은 무질서한 물의 양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육각수가 일부 떨어져 나가 세포내 무질서한 물의 양이 증가하면 노화가 촉진되는 것이다.

따라서 육각수 물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인체의 세포가 건강해져, 자연스럽게 노화현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게 된다.

차가운 물이 바로 육각수

그렇다면 이처럼 생명체에 유익한 육각형 고리구조의 물은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을까? 물의 온도가 10℃에서는 육각수가 3~4%, 0℃에는 10%, 과냉각상태의 -30~-40℃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육각수로 물이 차면 차가울수록 육각수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끓인 물을 냉장고에 넣어 냉각시켜 마시거나 얼음을 넣어 마시는 것이 육각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자 건강의 비결이다. ☺

